—오늘도 엄마 생일이 돼서 사왔나?
—아니야 물건 값이 내려서 사왔단다。

3 - AUG - 9
Copy ______ 1960

송용남 그림

활살

9월호 1956년(70)

누가 더 잘 아나?

—얘 너 왜 신 신구 그 우에 올라갔어?
—이건 새 신이 돼서 일없어, 이번에 새로 산거야。
—얘 너 이번 물가 인하가 몇번짼지 알어?
—다섯번째지 그런데 너 11월 달에 뭐이 있는지 알아?
— 선거가 있지。

백인균 그림

만고 역적

김 광현

갑—자네 리 완용일 아나?
을—리 완용이라니, 나라 팔아 먹은 역적놈 말인가?
갑—그렇지, 그 리 총재가?
을—아니 갑재기 리 총잴 왜 찾나?
갑—리 완용인 그때 일진회 총재야。
을—난 또 리 승만 자유당 총잴 찾는다구…
갑—같은 리 총재지만 리 완용이가 승만이보다 촌수가 높아。
을—그럴테지 먼저 났으니까。
갑—그 리 완용이가 이등박문이 하구…
을—이등박문이라니?! 그때 일본서 건너 왔던 도적놈 말인가?
갑—그래 바루 그 이등박문이 하구 리 완용이가 경복궁 경회루 련못가를 산보하면서 하는 수작이것다…
박문—리상!
완용—하이!
박문—리상! 만약에 한국에 주둔한 우리 일본 군대 철거한다면…
완용—아이구 그런 말씀 아예 마옵소서, 일본 군대 철거하면 제 목숨 위태위태하옵니다。
박문—그러니까 리상은 내말 잘 들으시오. 우리 조약에 도장이나 찍으시오。와까리마시다까?
완용—하이 하이!
갑—허구서 리 완용이가 한일 합병 조약에 도장을 찍었단 말야。
을—원 저런 죽일놈 좀 보게。
갑—그러더니 이번엔 리 승만이가 미국 대사허구 경복궁 경회루 련못가를 산보하면서…
을—아니 또 산보야?
갑—리 완용이 땐 동경서 만든 「게다」소리가 났지만 이번엔 워싱톤에서 만든 검정 장화소리가 들리더니…
대사—떽허 리!
승만—이예쓰!
대사—떽허 리! 만약에 한국에 주둔한 우리 미국 군대 철거한다면……
승만—아이구 그런 말씀 아예 마옵소서, 미국 군대 철거하면 제 목숨 위해 위태하옵니다。
대사—그러니까 떽허 리는 내말 잘 들으시오。
승만—이예쓰, 이예쓰, 말씀대루 북진에 여생을 다 바치겠습니다。
을—원 저런 놈 봤나!
갑—그런데 그 리 승만이허구 리 완용이가 서루 만났거든…
을—아니 리 완용인 벌써 옛날에 죽었는데 어떻게 만난단 말인가。
갑—리 승만이가 낮잠을 자다가 꿈 속에서 만났단 말야。
을—그건 아주 악몽일세그려。
갑—악몽이 아니라 개꿈이지。
을—옳아 개꿈。
갑—꿈 속에 나타난 리 완용일 보구 리 승만이 절집을 해가지구 하는 말이…
승만—오 자네 리 완용이 아닌가。
완용—자네라니 너는 촌수도 몰라 보느냐?
승만—……
완용—얘 승만아。
승만—……
완용—어찌하여 대답이 없는고?
승만—이예쓰。
완용—「이예쓰」가 뭔고「하이」그래야지
승만—식이 그 옛날과 좀 달라졌습니다。
완용—그래 그건 무슨 식인고?
승만—미국식이웨다。
완용—에키! 이 고연놈!
승만—아니 왜 자꾸 화를 내십니까。
완용—화를 안내게 됐나 내 말을 들어 봐라! 내가 먼저 이등박문이 하구 한일 합병을 하였는데 어째자고 네가 한미 합동을 하여 나라를 다시 팔아 먹으니 이등박문이가 나보고 손해 배상을 하라니 이 일을 어쩌단 말이냐。
승만—허어 그러니까 그때에두 한일 합병을 할 것이 아니라 한미 합동을 해야 했지요。
완용—에키! 고연놈! 나도 역적질은 하였지만 너처럼 미국 놈 앞잡이로 동족 상쟁은 하지 않았다。
승만—그게 틀렸단 말입니다。이왕 역적질을 하려면 철저히 해야지요。
을—원 저런! 승만이란 놈은 리 완용이보다 한술 더 뜨는군 그래。
갑—그러니까 고금의 류례 없는 만고 역적이라는 거야
을—옳아 만고 역적!
갑—아무리 만고 역적도 평화의 불빛 아래선 오금을 못쓴다네。
을—그렇지 도적이란 원래 어두운 곳을 좋아하니까
갑—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3천만의 념원인 평화의 횃불을 들고 나서야 한단 말야!

전전 긍긍

유 항림

남의 눈을 기이는 듯 박 군수가 혼자서 땀을 흘려가며 짐을 꾸리고 있는 곳에 그와는 찰떡 같이 의좋게 지내오는 윤 경찰서장이 찾아왔다。

『군수 령감, 어디로 영전이라도 합니까?』

『뭐 영전? 아니요』

『그럼, 이사라도 하십니까?』

『아니요』

『가만 있자, 그리고 보니 이삿짐 같지도 않고… 알았소, 값나가는 것만 추려서 짐을 싸는걸 보니, 도망꾼의 봇짐같은걸요』

『서장— 남의 일같이 롱담만 하지마우。그런 경황이 아니니까…』

『뭐? 무슨 일이 생겼소? 전달의 이백만환 전이 드러났습니까? 그 참 큰일인걸!』

『안요, 그맛 일이라면 뭐 큰 일이랄 것도 없지! 다른게 아니라… 「대통령 각하」가 앓는다는 말을 못들은 모양이군요?』

『대통령이? 어디를 앓고 있습니까?』

『감기라고 하지만서두, 년세가 년세니까… 그런데 만일에「대통령」이 죽는 날엔 「부통령」이「대통령」으로 될거 아니요?』

『그야 그렇겠지요。』

『만일에 장 면이가「대통령」이 되는 날엔 내나 서장은 다 되는 날인걸요』

『그참, 그땐 벼슬두 다해먹는 판이군요』

『벼슬만 못해먹게 된다면 차라리 약과지, 십상팔구는 까마귀 밥이 될걸요』

『설마! 장 면이가 뭐 우리들 한테까지 보복하려구 벼르기라도 하고 있는가요?』

『내 언제 장 면이를 만나 봤어야 그자의 속을 알지 않겠소? 그러나 자신이 한 일을 좀 생각해 보란 말요. 장 면의 앞으로 나섰던 선거운동원들을 억압, 체포, 감금, 고문… 나중엔 죽이기까지 한건 대체 누구요。장 면이가 만일에「대통령」이 된다면 그런 사람을 그대로 둘 줄 아우?』

『그래 군수 령감은 아무 일두 저지르지 않은체 하구 남의 이야기만 하는구료。테로단을 동원해서 신 익희와 장 면네 선거 사무소를 습격케 한건 누구요?』

『하아 이 양반이 어쩌자고 물귀신 심사루 공연한 사람까지 물고 들어가는 거야? 그래 야당파들의 선거 연설은 모두 집회 금지를 시킨 건 누구구, 사복 경찰을 투표장 안에 들여보내 투표하는 걸 감시하고 강압한 건 누구야? 어디 대답 좀 해 봐!』

『날 필로 알구 함부루 반말질이야?! 그래 야당파에 찬성 투표한 사람의 자식은 학교에서 내쫓을테라구 학생들까지 위협하도록 지시한건 누구구, 위조 선거표로 리 승만과 리 기붕의 찬성표를 만들어 무데기루 선거함에 처넣은건 누구야?』

『이럴 변이 있나?! 시골선 나이 으뜸이란 말이 있는데 나로 보아서니 어디다 대고 반말질인고? 자신을 좀 돌이켜 보라고— 한 사람에게 투표를 일곱번씩이나 시킨건 누구구, 선거함을 운반하는 도중에 야당파에 찬성한 표들을 없애 치운건 누구야?』

『임마, 그래「한국」에선 주먹이 으뜸이란 말을 못 들었어? 그래 이번 군 면 의원 선거 때만 해두 야당파 립후보자들에게 생억지를 써서 립후보를 취소한 건 누구야?』

『누구긴 누구야, 물인지 불인지 모르구 함부루 날뛰던 네 놈이지。주먹다짐으로 야당파들은 립후보도 못하게 하고서는 투표도 없이 당선을 조작한게 네가 아니구 누구냐? 어디 말 좀 해 봐! 투표도 없는 선거가 어디 있으며 투표도 없이 당선은 무슨 당선이냐?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냐, 그게 모두 누가 한 짓이야? 어디 말 좀 해 봐!』

『이 뻔뻔스러운 늙은 여우 같으니 그래 너는 거기 상관 안했단 말이냐?』

둘이는 서로 악다구니를 했고 드잡이라도 할 듯이 서로 흘겨 보았고, 다음엔 한숨들을 쉬였고, 나중엔 저마다 걸상에 주저 앉았다。얼마 후에 박 군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여보게 서장, 우리 둘이 싸와 본댔자 되는 일이 될 것 같지는 않네。그러지 말구 우리 서로 의논이나 해 보세』

『그러세, 그런데 군수 령감은 어떠헐 작정으루 봇짐을 꾸리구 있었나?』

『만일에 리 승만이가 죽는 날엔 한시 바삐 꼬리를 사릴 작정이네。「대통령」측근자들한테 연줄을 놓아「대통령」의 건강 상태에 대해 정보를 받도록 해 놓았네』

그리하여 둘이서 한참이나 이마를 맞대고 의논한 끝에 윤 서장이 포구로 나갔다。그는 기왕에도 거래가 있던 배 임자 하나를 만났다。

『이봐, 배를 좀 빌려주지 못하겠나?』

『서장 나리께서 쓰신다면야… 그대신 지서 어른들이 너무 무리하게 굴지 않도록 좀 단속해 주십소. 언제 쓰시렵니까?』

『얼마 후에』

『얼마 후에요?』

『그건 아직 똑똑힌 모르겠네』

『아하… 서장님두 그 축이시군요。「대통령」의 탈이 위급해지는 경우 말씀이지요?』

만일의 경우를 념려하여 도망갈 준비를 지금부터 하고 있는 것이 비단 박 군수나 윤 서장 뿐만이 아니란 것을 알았다.

경무대 한 방에서 리 승만과 리 기붕이 밀담을 하고 있다。

『대통령 각하, 전번 말씀 드린걸…』

『리 기붕 선생, 념려마시오, 해외전시안으로 조선의 국보들을 미국으로 실어내다 팔아서는 말이지요。념려마시오, 리 기붕 선생께도 한 몫 줄테니…』

『고맙습니다。그런데 저어 그것 말고 헌법 개정안 말입니다』

『그만두시오。그만두래두… 늙은 사람더러, 네가 죽으면 네가 죽으면 하고 죽은 뒤의 이야기를 자꾸만 하자는건 날더러 어서 죽으란 말 같소。나 죽은 뒤에야 누가 대통령이 되든 내게 무슨 상관이요… 컬럭… 컬럭』

『쉬— 이 기침소리만 밖에 들려도 소동이 일어납니다。며칠 전에「각하」께서 감기로 앓으신 때만 해도 장 면이가「대통령」으로 되지나 않을가 해서 도망갈 준비를 한 자들이 수다합니다』

『오, 하나님 맙소서!』

『수하의 사람들이 모두 이렇게 당황해서 기침 소리에도 놀랄 정도로 전전긍긍해서 상가집 개 같아졌으니, 이런 사람들을 의지하구서야 어떻게 정권을 유지할 수 있겠어요?「각하」가 돌아가신 후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지금 당장의 문젭니다. 이런 상태로는「각하」가 살아 계서도 「대통령」 자리에 그냥 앉아 있지 못하게 될 겁니다。헌법을 고쳐서 『각하』가 돌아가시는 경우에도 장 면이가「대통령」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주 긴급한 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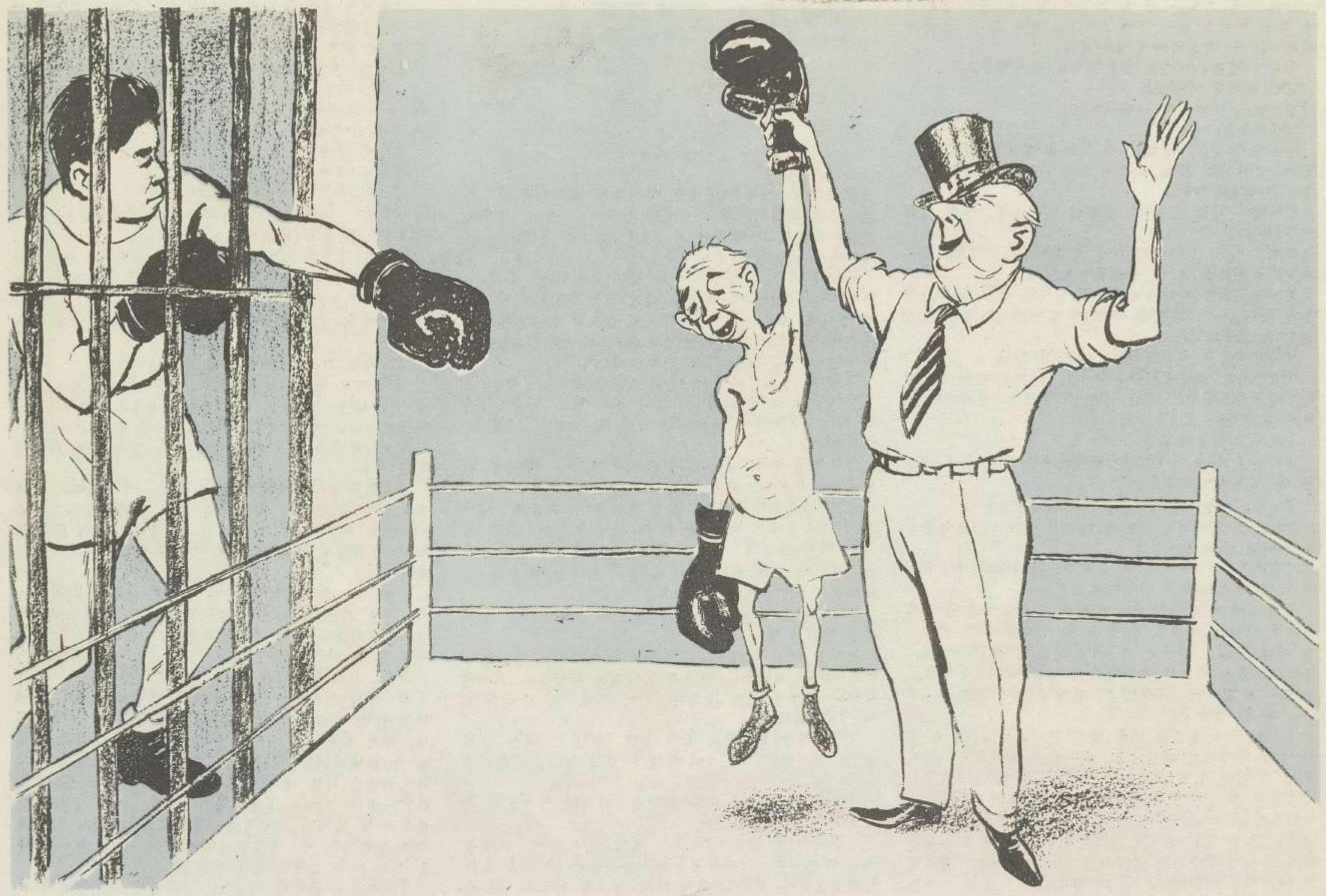
『그렇다면 문제가 다르오。그 헌법 개정안인가 하는 것을 어디 다시 한번 봅시다』

생활은 걸음마다 달라진다

안창수 그림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부단한 배려에 의하여 전후 5차에 걸치는 국정 소매 가격이 인하되였다.

투표 없는 당선



—우리 미국 신사는 언제나 공정합니다,

박승히 그림

리 승만 도배는 파쑈 독재적 정권을 정탈하기 위하여 지난 8월에 있은 지방 선거에서『기득권』의 강제 조작을 비롯하여 야당파 인사들의 립후보 등록의 강제 취소를 감행하는 등『선거』전에 부전승을 조작하였다.

"체포 당한 기니네"

신 흥순

인민을 체포하다 못해 나중에 약방에 있는 "기니네"를 체포해 갔다는 거짓말 아닌 사실이 오늘 저 남조선에 있다。

허긴 억압과 체포를 일삼는 미제와 리 승만 파쑈 통치 아래서는 울었다고도 체포하고 웃었다고도 체포하는 무법 천지이긴 하지만 울 줄도 웃을 줄도 모르는 "기니네"는 또 무슨 누명을 씌워 체포를 하였을가?

◇ ◇

—장관님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회국장은 두 손을 비비면서 장관을 쳐다 보았다。

—그래 이 통계 숫자가 정확한겐가?

—네 틀림 없습니다。

—틀림없다? 에또 집없는 사람이 10만 세대, 실업자가 200 여 만, 류랑 고아가 50만 이상, 결핵 환자가 120만, 문둥병 환자가 에—또 4만 5천, 그리고 아편 중독자가 4만에 무당, 점쟁이가 8천 여 명? 그리구 또 자살자가… 잉 안되겠어! 이걸 신문에 발표해 봐! 뭣이 되겠나?

—전번에 발표한 것보다 약간 좀 더 는걸입쇼。

—허지만 이런건 하나래두 줄여야 할텐데 외려 더 늘다니? 이봐! 통계가 아직 안됐다구 사오일 더 있다 오라구 해!

—우선 자살자 통계만이래두 달라는뎁쇼,

—자살자? 가맛자 에—또… 아니 웬 자살자가 이렇게 많은가? 엉? 서울시만두 8개월 동안에 238명이야?

—그럼입쇼, 날마다 한두건 없는 날이 있었나요? 모두가 생활난으루…

—이건 사실 내가 보건 사회부 장관으루 취임하면서 첫째 자살자를 없애겠노라구 담화까지 발표했는데 이렇게 많다니?

—아하 장관님 알았습니다。 기자들이 생트집을 잡자는 수작입니다。

—무슨 트집?

—"취임 인사대룬 하나도 실행되지 않고 자살자는 점점 더 늘어만 잘간다"구 말씀이올시다。

—옳지 그래서 자살자 통계를 달라는 게로구나! 아마 또 한 잔 생각이 나는 모양이지?

—그럼 숫자를 줄여서 발표합죠。

—아 물론… 그런데 이 통계엔 어떻게 죽었다는건 안 밝혔나?

—그 뒤에 있습니다。

—음 투강, 철도, 음독 아니 거의 다 음독 자살이로구먼?

—네 그래서 요즘 약방들에선 "기니네"가 세통이 난다누먼요。

"기니네"? 아하 됐어! 이봐 국장!

—네。

—당장 각 약방들에 있는 "기니네"를 모조리 체포해 들이란 말야!

—아니 체포라닙쇼?

—압수해 들이란 말야! 그리구 그런 극약들은 일체 매매할 수 없다는 "극약 단속령"을 내리잔 말야。

—"극약 단속령"입쇼?

—그래 "기니네"만 없애놓면 자살자는 자연 없어질게 아닌가? 흐참。

그리하여 벼락같이 "극약 단속령"이란걸 내렸다。

◇ ◇

그래서 자살 사건의 장본인으로 요즘 약방들에 있는 "기니네"를 모조리 "체포"해 갔다。 뿐만 아니라 수면제며, 페니시링, 그리고 마이싱, 크로루마이싱, 나이드라밍트까지도 극약이라 하여 닥치는대로 압수해 갔다。

이렇게 극성을 피웠건만 자살자는 여전히 꼬리를 물고 발생되였다。

그러므로 장관은 산하 관계 직원들을 총발동시켜 이 "단속령" 위반자들을 적발하도록 명령을 내렸다。 그래서 약방마다 돌아 다니면서 취체를 하는데…

—여보 쥔!

—네。

소복을 한 중년 녀성이 나왔다。

—가게문을 딱딱 걸어매구 안에서 무슨 쑹쑹일 꾸미구 있어?

—인젠 약방을 걸어 치웠는데요。

—그만 둬? 왜?

—왜가 뭡니까? 값진 약은 몽땅 압수해가서 장사가 드럭이 났으니 못하지요, 너무도 억울하고 분한 끝에 우리 쥔까지두…

부인은 말끝을 채못맺고 치마자락으로 눈을 닦는다,

—남편이 어쨌단 말이야?

—약방이 망하는 바람에 먹고 살 수가 없어서… 독약을…

—뭐? 또 자살이야? 약방 쥔까지!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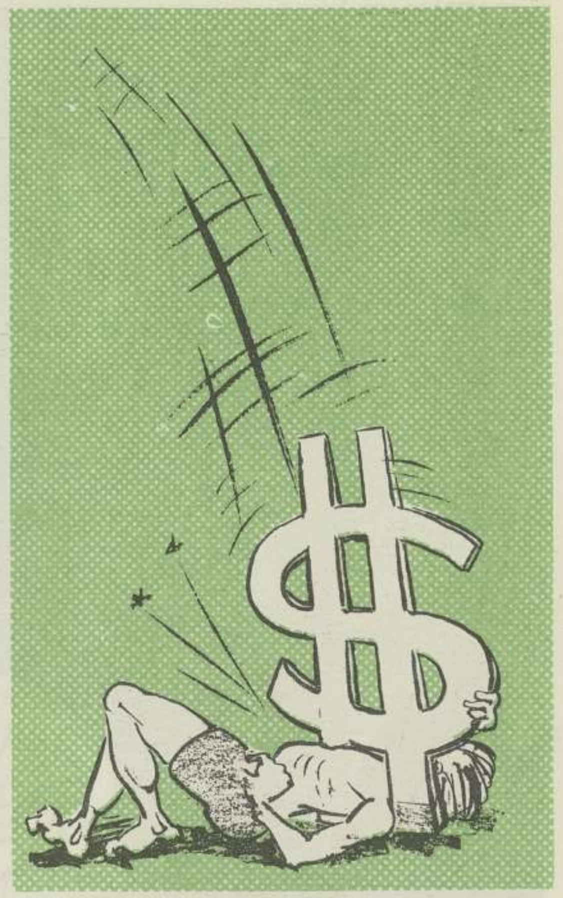
인민들을 기아와 빈궁 속에서 신음하게 만든 자기네들의 죄상은 슬쩍 뒤꽁무니에 차고 이러한 참극의 원인이 왕청같은 "기니네" 때문이라니 얼마나 가소로운 희극인가?

속담에 살인범이 "사람을 죽인건 내가 아니라 칼이올시다"하는 격이다。

남조선의 경제 법칙

백인균 그림

물가 등귀의 지남철은…



…혹심한 생활고를

미제의 식민지 략탈 정책으로 오늘 남조선 물가는 계속 등귀하고 있는데 리 승만 도배는 이 등귀하는 물가를 억제한다는 구실 밑에『공무원 감원』과『임금 동결』을 실시하여 인민들은 더욱 도탄에 빠지고 있다。

백인균 그림

괴뢰 국회에서

—요것 가지군 모자라! 더 가져와 더!

전당포에서

—나가 나가! 여긴 밥 주는 데 안야!
—밥 빌러 온게 아니라 이것마저 전당 잡히러 왔어요。

전후 전쟁 준비로 인한 증가된 군사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리 승만 도배는 조세의 대폭 인상과 함께 국채와 화폐를 계속 람발하고 있다。

밑천 안드는 돈벌이

—자— 자꾸 자꾸 찍어라

평화적 조국 통일에 대한 목소리는 높아졌다

승만—평화가 나를 위협합니다。

송용남 그림

평화적 조국 통일에 대한 남조선 인민들의 기세가 높을수록 리 승만의 멸망은 가까워 오고 있다.

「자유 세계」에 관한 알범

리 운봉

▲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대구 거리를 한 미국 녀자가 걸어가고 있었다。그런데 누가 추겼는지 돌연 그 녀자에게로 사납게 생긴 개 한마리가 달려오더니 그의 옷자락을 덥석 물었다。질겁한 그 녀자는 뱅뱅 돌아가면서 소리를 지르며 야단을 쳤다。그러나 이들을 극도로 증오하고 있는 인민들은 이것을 보고도 시원한 듯이 웃으며 그냥 지나갔다。

그때 땅에서 솟은 듯이 순경이 나타나더니 권총으로 그 개를 쏘았다。그리고는 이자 이것을 보고도 그냥 지나가던 사람들을 모두 불렀다。

『왜 개가 무는 걸 보고도 말려 드리지 않았어?』

순경이 따졌다。그러자 누가 맞잡았다。

『길 가는 외국인을 바라보지 못하게 돼 있으니까 가만 있었지요』

사실 요지음 『문교부』에서 내려온 『외국인에 대하여 시민들과 학생들이 취해야 할 례의 준측』에 길 가는 외국인들을 서서 바라보지 못하게 돼 있다。말이 막힌 순경은 이렇게 걸고 들었다。

『그럼 개가 무는 걸 보구 웃긴 왜 웃었어? 그건 준측 위반이 아니야? 모두 가자!』

▲ 죄 없는 죄인

『좋아! 나가 기다려』

박 첨지의 고소를 들은 차 순경은 김 지주를 불러 왔다。

『령감, 머슴을 어째 그렇게 때렸소?』

『그 죽일놈이 명주필을 훔쳐내가서… 나릿님』

『증거가 있소?』

그러나 김 지주에게는 증거가 없었다, 그래 할 수 없이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릿님, 사실은 저… 그런게 아니구…』

김 지주는 말을 멈추고 지갑에서 돈을 꺼내 차 순경의 호주머니에 찔렀다。

『나릿님, 사실은 그놈을 내쫓아야겠는데 줄 돈이 없어서 그냥 내쫓으려고 꾸민 겁니다』

(고것 가지구?)

돈이 눈에 차지 않는 순경은 일부러 엄하게 을렀다。

『령감, 박 첨지께 줄 돈을 다 주구두 몇달 동안 류치장 신세를 져야겠소』

그리고는 조서를 꾸미기 시작했다。

『나릿님!!』

김 지주는 황급히 큼직한 돈 뭉치를 꺼내 순경의 호주머니에 쓰러넣었다。순경은 조서를 쓰던 것을 멈추었다。

『사실은 큰 징역감인데 특별히… 돌아 가시오』

그리고는 박 첨지를 불러 왔다。

『어째 명주를 훔치구두 안 훔쳤다구 거짓말을 했어? 응?!』

『무슨 말씀을…』

『증인이 다 있는 데두 죽일라구 그래?!』

차 순경은 가죽 채찍으로 매질을 시작했다。

『이놈 아직두 안 훔쳤어?』

『예 훔 훔쳤어요』

박 첨지는 너무 급해서 그만 이렇게 대답했다。

그리하여 차 순경은 박첨지의 조서를 꾸미기 시작하였다。

▲ 빼앗긴 배치장

서울 사범 대학을 졸업한 리 영남은 몇번이나 취직을 하려 시청으로 찾아 갔었으나 때마다 헛걸음을 하고 돌아 왔다。그것은 요지음 학생 정집과 관련하여 학교를 대량 축소하는 바람에 교편을 잡고 있는 교원들도 쫓겨나는 판이라 돈이나 권세, 그리고 아무런 "빽"도 없는 그는 거저 발싸개만치도 여겨주지 않기 때문이다。그러다가 그는 겨우 성신 녀자 고등 학교에 취직자리를 얻었다。

그리하여 밥 자리를 얻어 가지고 시청문을 나선 그는 그제서야 후— 한숨이 나갔다。

허나 그것은 순간이다。인사 행정처의 사람이 황망히 쫓아나오더니

『자넨 신수가 사납구만, 방금 그 학교에 교원을 더 배치하지 말라는 지시가 왔소』하며 배치장을 도로 빼앗아 갔다。그리고 그것을 방금 취직을 하려 온 지주 아들에게 주었다。

▲ 서장의 권리

일요일。부산 경찰서장 김 인국은 찦차에 기생들을 싣고 공원으로 달리고 있었다。그는 자동차길이 아닌 골목으로 쏜살같이 차를 몰다가 길가에서 놀던 댓살 나는 아이를 깔아 놓았다。그러나 서장은 누가 보면 시끄러울가봐 운전수에게 그냥 몰라고 했다。

그 이틀날이다。상한 아이를 안은 한 어머니가 눈에 쌍심지를 달고 서장실로 달려 들어 왔다。

『내 아들을 이렇게 만들었으니 고쳐 놓소!!』

어머니는 막 미친 사람처럼 덤벼 들었다。

『음 네가 그애 어미냐? 마침 잘 왔다。김 순경! 죄인이 나타났어, 빨리 조서를 꾸며!』

『뭐 나보구 되려 죄인이라구??』

『자기 죄를 자기가 몰라? 어째 아이를 길가에 내보냈어? 응?! 그 때문에 어제 국가 일이 얼마나 늦어졌는지 알아? 김 순경! 이년이 자기 죄를 인정할 때까지 갖다 가둬!』

리승만의 흉내질

유 항림

△ 누구를 위한 조합이기에

『아버지, 어떻게 갑자기 올라오셨습니까?』

『네게 좀 물어 보고 싶은 일이 있어서 불야불야 서울로 달려왔다。농민 조합을 만든다는 말이 있는데 그게 사실이냐?』

『네, 「북한」에서 농업 협동 조합들이 조직된 후로 농민의 생활이 훨씬 더 좋아졌다는 소식이 차츰 퍼지자 여기 농민들은 전보다도 「북한」을 더 쳐다 보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농민 조합을 만들기로 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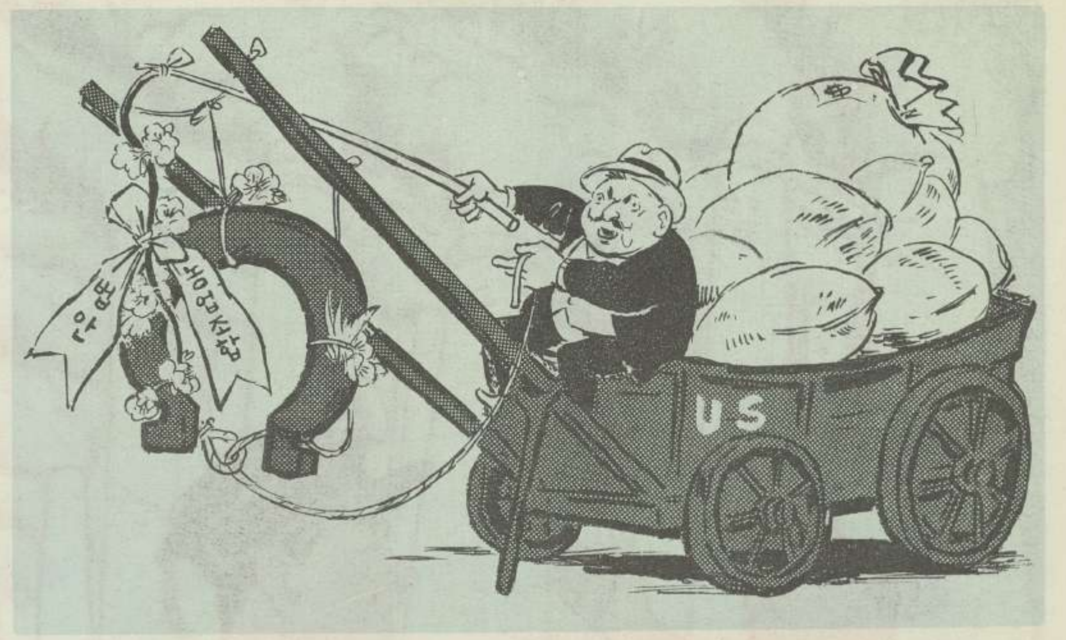
『그럼 그게 사실이란 말이냐 「북한」에서와 마찬가지로 농민들의 조합이 된다면 소작료는 어떻게 받으며 머슴은 어떻게 부려먹으며 변돈놀이는 어떻게 하느냐? 네가 농림부의 고판으로 있으면서도 그걸 막지 못했단 말이냐?!』

『아버지 걱정 마십쇼。「북한」의 농업 협동 조합과 비슷한 것은 이름 뿐이니까요, 우리가 만드는 농민 조합에서는 전과 다름없이 소작도 주고 머슴도 쓰고 변돈놀이도 할 수 있습니다。조합은 단지 농산물을 팔거나 비료 같은 걸 사는 데만 관계하는데, 조합은 돈 있는 사람들이 좌우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주들에겐 조합을 만드는게 전보다 더 리롭겠구나!』

『그렇고 말고요。우리 농림부 뿐 아니라 「한국 정부」전체에 지주들이 모두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판에 지주들에게 해롭게야 하겠습니까?!』

미끼



—고기를 잡으려면 미끼가 필요한 것처럼…

△ 로자 협조

인민들로부터 증오와 배격을 받고 있는 리 승만 괴뢰 도당은 어떡허면 조금이라도 자기들의 정권을 연명할 수 있을가 하고 갖은 테로와 억압을 가하면서 한편으로는 온갖 기만과 회유의 방법을 다 쓰고 있다。

그 기만 수단의 하나가 소위 로자 협조다。다시 말해서 자본가는 로동자들의 피를 빨아먹고 로동자들은 피를 빨리우면서 서로서로 의좋게 화목해서 잘 살자는 렴치좋은 수작인 것이다。

로자 협조의 「리론가」한 선생님이 연단에서 연설을 했다。

『사회란 하나의 생물과 같습니다。일은 팔다리가 하는데 맛있는 음식은 입 혼자 먹는다고 불평해서는 안됩니다。입이 먹어야 팔다리도 기운을 냅니다。이와 마찬가지로 일은 로동자들이 하는데 리속은 자본가가 차지한다고 불평해서는 안됩니다。입이 먹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훌치기

—우리는 가난한 농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오。

그때 듣고 있던 로동자가 질문했다。

『그러면 자본가들이 매일 같이 질탕히 먹고 있는데도 우리 로동자들은 조금도 기운이 나지 않으니 그건 어찌 된 일이요?』

그러자 로자 협조의 리론가는『그건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말이야』하고 고함을 질렀다。그자들이 공산주의자들을 미워하며 두려워하는 것은 공산주의자들이 항상 진리를 말하기 때문이다。

△ 관심사

『북조선에서만 5개년 계획을 세울 줄 아나, 리 승만 도당도 5개년 계획을 세웠다네。』

『금시 초문인걸! 거짓말 아닌가?』

『정말이네。형무소 증설 5개년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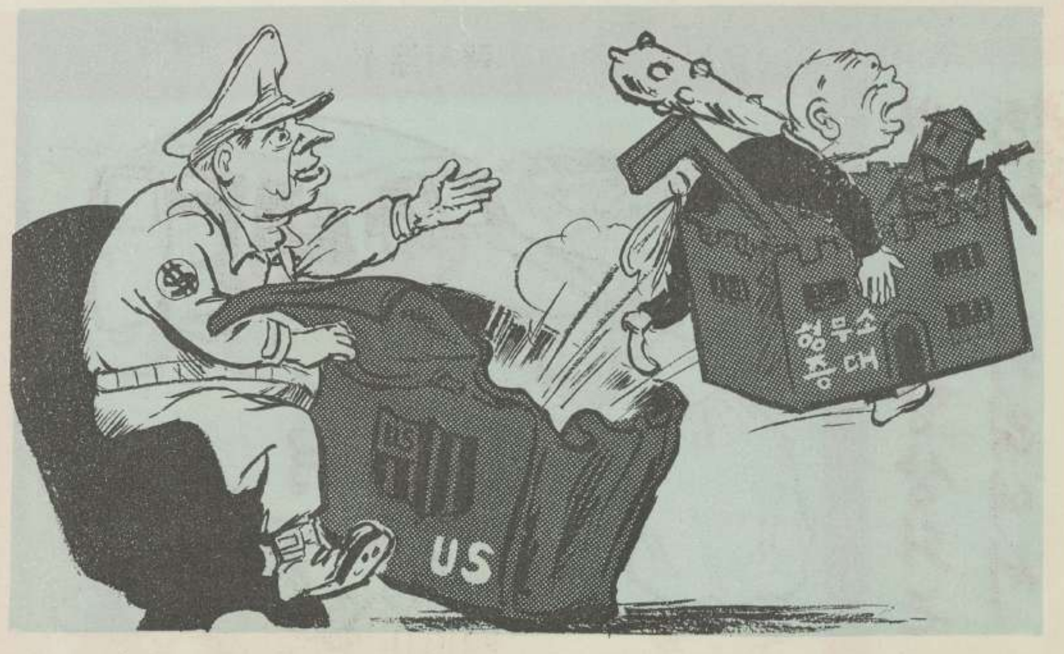
『에구, 형무소가 아직도 적어서 5개년 계획까지 세우고서 형무소를 대대적으로 증설하는가?! 그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더 체포 투옥할 계획인가?』

『어쨌든 인민들과 자기들 사이에 철창을 질러 놓아야 안심이 되는 리 승만 도당이니까…』

『그러면 남조선 천지를 감옥으로 뒤덮으려고 할 것도 없이 아주 쉬운 방법이 있는걸! 리 승만 도당이 형무소에 들어가 앉고 보면 인민들과의 사이에 철창이 있을거 아닌가?!』

『결국엔 자기들이 들어가야 할 곳이니까 형무소에 대해 그처럼 관심이 큰지도 모르지』

우리도 건설했다



미제— 우리의 원조로 대한에서도 이런 건물을 건축했소! 리영춘 그림

석탄은 산업의 빵이다

—이것이 당신의 빛나는 업적이요.

홍종호 그림

오늘 두번째의 탄부절을 맞이하는 석탄 공업 부문 일군들은 당과 정부의 각 방면으로 되는 배려에 무한히 고무되면서 온갖 창발적 투쟁을 가강하게 전개하고 있다.

기쁨 끝에

김 순화

지난 8월 14일이였다. 리 우선 녀성은 장에서 돌아와 저녁을 하면서 "임금이 오르고 물가가 내린다지! 오죽 좋을가?"그는 감동으로 가슴이 뿌듯해지는 것을 느꼈다.

직장에서 돌아오는 남편이 방안에 들어오자 그는 성급히

『여보 오르내린걸 알어요?』

그의 남편은 저녁에 집에 돌아가면 로동자, 사무원들에게 평균 35%라는 임금이 인상되고 국정 소매 가격이 인하되면 자기들의 생활이 유족할 데 대한 기쁨을 가족과 함께 나누려고는 하였던 것이지만 아닌 밤중에 홍두깨 내미듯이 묻는 안해의 의도를 알 수 없었다.

『아니 오르내리다니? 그래 다층 아빠트에 살려면 오르내릴거야 뻔하지 않소?』

『아이구 당신두, 코 틀어막고 답답하긴!… 임금이 오르고 물가가 내린다는걸 모르는가 말이지요?』

『그거야 알구도 남었지, 당과 정부의 부단한 배려로 로동자, 사무원들의 임금을 평균 35% 인상할 데 대한 내각 결정 제75호와 국정 소매 가격을 인하할 데 대한 내각 결정 제76호가…』

『아이구 바쁜데 그렇게도…』

『여보 바쁘다고 바늘 허리에 실을 매서야 쓰오?』

름름한 남편의 말마디가 끝나기도 전에 그는 발등에 불이나 떨어지듯 성급히 돌아갔다.

『그런걸 따지지 말고 오르고 내리면 많은 생활 여유가 생기는 것으로 살림살이를 장만하여야겠으니 당신도 고뿌 찜질을 착착하란 말이예요』

『하 하 하— 그래 무엇을 장만하기로 계획하였소?』

『백화점에서 영수가 학교 갈적에 메는 가방을 보았는데 우선 그것을 사야 하겠고…』

『세살난 영수의 책 가방을… 어린애 설기 전에 포대기 준비부터야…』

『그 뿐인줄 알어요? 많고 많은데…』

『어디 그러면 세어 봅시다』

『영수의 양복과 모자, 당신의 비옷과 와이샤쯔 그리고 구두도 장만하여야 하겠어요…』

『여보게 당신은 구경만 하겠나?』

『참 나를 빠뜨렸군요. 나는 나드리 치마감과 화장품 그리고 모기장도… 그런데 당신! 코는 왜 쥐고 있나요?』

『재채기란 놈이 나올가 말가 하는구려…』

『아이구 란내야 생선 지지개가…』

풍작이라고 해서…

—추수가 박두한 이때 이런 일로 바삐 돌아가서야…

홍종호 그림

생활이 향상되는 거리에서

택시로!

—기쁜 소식이 많더니 네가 왔고나!
—할머니도 알고 계셨군요?

달에 달마다 달라져

—얘 경수 동무는 새 구두를 사 신었어
—저 양복은 전달에 사 입은 것이란다。

길 아닌 곳을 가고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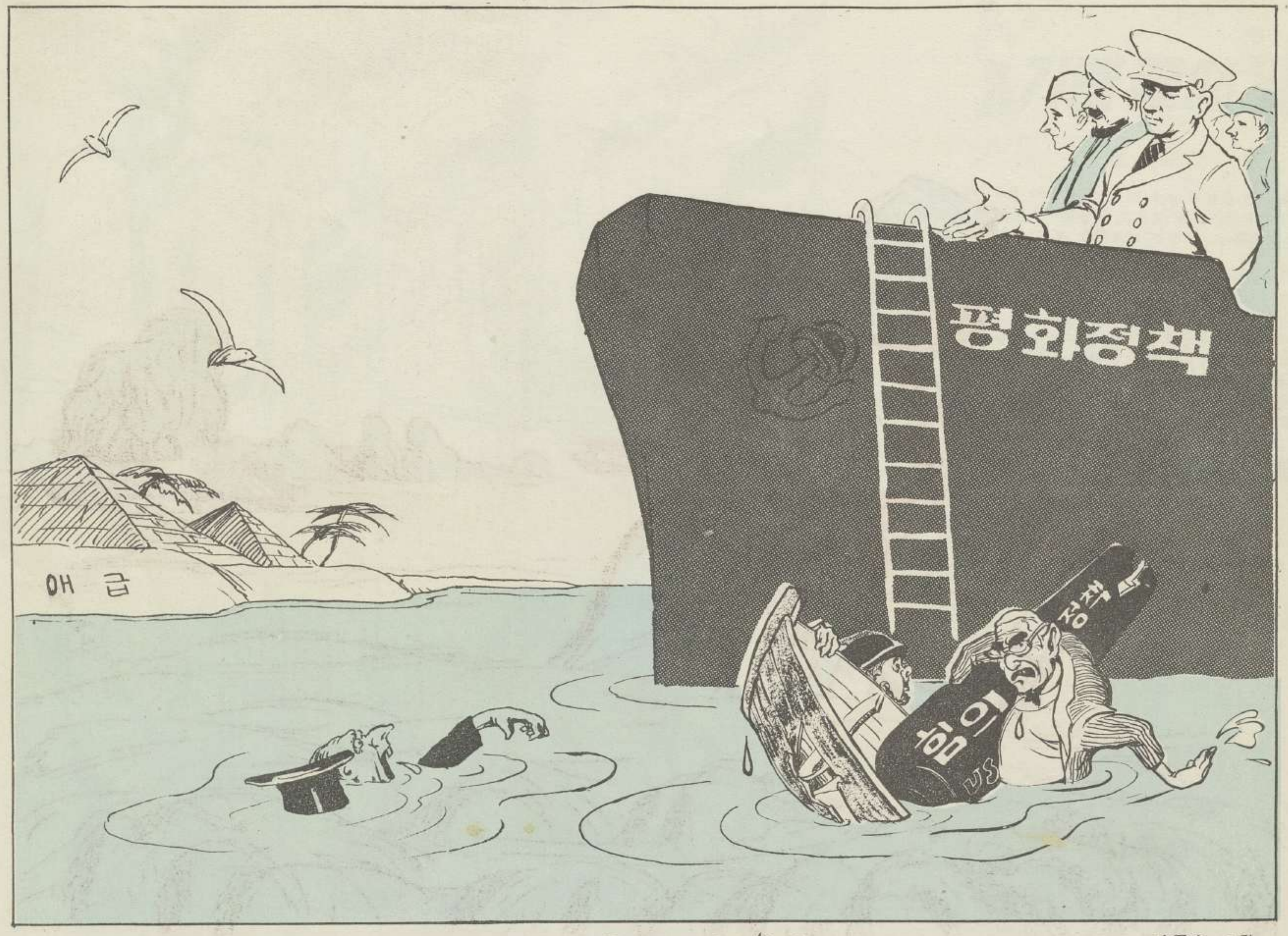
—엄마! 민주 조선에 난 사진이 엄마 아빠를 닮은 것 같애요?
—그것은 네가 볼 것이 아니다。

좋은 집에 들었건만

—비는 그만 그쳤으면 좋겠는데…
—길을 빨리 고칩시다。

박승하 그림

우둔한 고집



—무거운 짐을 버리고 올라 '오시오。

홍종호 그림

미, 영, 불 식민주의자들은 수에즈 운하 문제 해결에서 평화적 협상의 길을 반대하고 계속 『힘의 정책』을 고집하고 있는바 이는 곧 자멸의 길을 택하고 있는 것이다。

영국 잡지 "쓰뻬이 크쩨이 또루"는 국제 긴장 상태가 완화되고 있는 이때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는 서방 국가들에서의 군비 경쟁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서방은 지금 애써서 겨울 옷을 만들어 입었는데 뜻밖에도 눈 녹이는 날씨에 부딕쳐 땀 투성이가 되버린 사람 몰골을 하고 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아는 바와 같이 이 경우에 가장 간단한 방법은 쓸 데 없는 옷을 벗는 것이다。 그런데 서방에 있는 어떤 사람은 아마 다른 방법으로 즉 주위의 기온을 저하시키려고 하는 모양이다…

가족 싸움은 도대체 무엇을 초래하게 되는가?

이 문제에 대하여 영국의 우익 직업 동맹 지도자 쩸 워트쏜은 "데일리 헤랄드"지에서 간단 명료하게 대답하고 있다。 그가 쓴 것은 바로 다음과 같다。

"영국 로동자들 가운데서는 최근 20년 동안에 왕왕 불평이 일어나군 한다。 그런데 1월에서 3월까지의 기간에는 심지어 정치적 성격을 띤 알력이 생겼다。 아마 로동자들은 어쩐지 집안 일에 속이 상하는 모양이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불만을 공장이나 광산에다 끼친다。 여러가지의 봄 차림에 대한 생각으로 기분이 상한 그들의 안해들이 로동자들을 노하게 하는 것은 역시 있을 수 있다。 로동자들은 자기의 원한을 어떤 점에서든 없애 버리려고 애쓰고 있다。 그러니 동맹 파업이 일어 난다"

영국 로동자들은 계급 투쟁의 동기가 되고야 말 이만큼이나 세세한 분석에 대하여 오직 쩸 워트쏜에게 감사할 밖에 없다。

그것은 음악이 아니다

영국 잡지 "에코노미스트"에 국제 통상에 관한 미국 통신이 게재되였다。

잡지는 상원 특별 조사 분과 위원회 위원장 존 마크 레란이 쏘련과 영국간의 통상 발전에 대하여 "무섭게 성을 내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그는 신경을 썩이고 있다。 비단 그이 뿐만이 아니다。 생각되건대 심지어는 "수평 평행 기계"나 "수직 회전 기계"들과 같은 그러한 상품들의 각개 이름들까지도 미국 정치 활동가들에게는 그 어떤 욕설 비슷한 것으로 들린다。

어떤 기분 좋은 음악을 감상하려고 하는 대신에 미국 활동가들에게는 례를 들어서 "수출 금지" "통상 방해" "차별 대우" "전략적 상품"들과 같은 그러한 말들이 들린다。

그런데 다 아는 바와 같이 영국의 광범한 무역 계층들은 (바로 미국 자체의 무역 계층도) 이러한 음악에는 이미 실증이 났다。

끄로꼬질에서

(한동신 번역)

국제 유모어 소개

hosteni— 알바니야 "호스제니"

알바니야 풍자 만화 잡지 "호스제니"
1956. 349호에서 전재

미제—나에겐 불빛이 필요치 않다。

미제는 자유의 녀신의 목적과는 반대되는 행동을 취하고 있다。

알바니야 풍자 만화 잡지 "호스제니"
1956. 355호에서 전재

미국의 소리

미제는 자기 나라에 망명하고 있는 알바니야 반역자들에게 미국의 말에 잘 순종하고 있는가고 따지고 있다。

알바니야 풍자 만화 잡지 "호스제니"
1956. 352호에서 전재

우리 지구상에는 방화자들이 장난할 곳은 없다。

차 시간은 어김 없다

—이번 차에 함께 가지 못해 섭섭합니다。
다음 차엔 꼭 오도록 하십시오。

리영춘 그림

3개년 계획을 당의 호소대로 2년 8개월에 완수하지 못한 기업소들은 증산 투쟁을 더욱 전개하여 3개년 계획의 기한전 완수를 위하여 투쟁해야 할 것이다

함조등

장 필순

욕심 때문에

—분장에서 기경기를 보내 달라는 독촉이 또 왔습니다。

—허 그것 참 보내 준다는 데도,

—어서 보내서 본장과 보조를 맞추어야 할 게 아니겠어요。

—여보, 중요한건 본장이요, 이쪽 기경이 끝나면 즉시로 기경기 15대를 몽땅 보내 준다고 다시 통지하서오。

—분장에서 쓰자던 기계까지 본장에서 다 쓰면 분장의 가을 채소가 낭패아닙니까。련락 온 동무는 거듭 분장의 사정을 력설하였다。

—글쎄 그러니 내 말이 그 말이 아니요, 이왕 늦은 것을 중심인 본장이래도 빨리 끝내야 하겠다고…

평양 농장 지도부의 이런 욕심으로 인해서 기경기를 제때에 받지 못한 정평 분장에서는 8월 말이 가까울 때까지 가을 채소 파종을 위한 밭 기경을 끝내지 못하였다。

이름만 믿고

"이런 광산에서 사업하기란 누워서 떡 먹기지"

지배인은 전파성이 있기는 하나 그래도 겨우 자기 계획을 달성한 것을 보여주는 생산 구라프를 보며 은근히 미소를 띄우는 것이였다。

이때 한 로동자가 방안으로 들어 오면서

—지배인 동무, 일하기가 힘이 듭니다。

—뭐?! 힘이 들다니?

—기본 굴진은 제쳐놓고 눈 앞에 생산에만 급급해서 여기저기 노다지만 캐고 있으니 말입니다。

—여보, 우리 광산에는 만년을 생산할 수 있는 량이 매장되여 있기 때문에 만년 광산이라고 하는 거요。저 구라프에 표시된대로 월말에 가서 저렇게 붉은 선이 쑥 올라간 것도 다 노다지를 캔 덕택인 줄 아시오。

이렇게 이 광산에서는 기본 굴진을 계획대로 할 대신 광산의 이름만 믿고서 노다지만 캐고 있으니 계속 이렇게 나가다간 닭 잡아 겪을 나그네 소 잡아 겪게 되는 형편에 이르게 될 것은 뻔한 사실…

기계들의 대화에서

—자네 몹시 피곤한 모양이군。

—몸에 불이 날 지경일세。

—그렇다면야 쉬야 되지 않겠나。그러다간 또 나같이 병신이 되고 말걸세

—그런데 어디 내 사정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래서 아픈 것두 꾹 참고 있다네。

—흥 자네 자신이 참는다고 될 일이 아닐 걸세, 거기엔 나도 경험이 있네。

—참 어찌 우리를 이렇게도 혹사하는지 도무지 모르겠네。

—기계 부문에서 3교대까지 해가면서도 손질은 하지 않고 돌격식으로 냅다 몰기만 하니 이 서평양 철도 공장에 나같은 병신이 한 둘인 줄 아는가。

—웬 일일가, 기계 설비를 애호하자는 구호를 써붙인 것은 여러번 봤는데…

—내가 하루는 이런 말을 들었네, 지금 저 옆에 새로 철도 공장을 세우는데 거기엔 몽땅 최신 기계로 설비한다나 그래서 그때 가면 우리 같은 구식 기계는 쓰지 않을 거라고 하데, 다 원인이 있어 이러는거지。

—그러나 자네 같은 병신, 나 같은 환자가 계속 생기면 설비 리용률을 높일 수 없지 않나。

—그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러지 않을테지。

걱정꺼리

셀로쯔 생산 강습을 앞두고 황해남도 인민 위원회에서는 직관용으로 탑식과 토굴식 저장고를 준비하게 되였다。

굳은 흙을 먼 데서 실어다 또 그것을 다져서 저장고를 쌓는데는 많은 로력이 동원되였다。

마침내 저장고가 완공되였다는 보고를 듣고 도 농산부 지도 일군들이 현장에 나갔다。

—아주 든든히 쌓였군。

—참 훌륭한데! 수강자들이 보면 놀랄걸세。

—우리 도내에서 모두 이렇게만 된다면 오죽 좋겠는가!

금시 쌓아 올린 저장고를 보면서 서로 이렇게들 만족해 하는데 한 경험 많은 일군이 있다가

—아무리 든든히 쌓아 올린 벽도 지붕이 없이는 비 한번이면 다 알아 보지요—하면서 지붕을 해 넣을 데 대해서 자기 의견을 내 놓았다。

—준비가 안된걸 어떻게 하겠소, 그거야 수강자들에게 말로 일러도 되는거니까…

이렇게 이에 대하여 귀담아 듣지 않으려는 도 농산부 지도 일군들은 그 후에도 지붕을 해 넣을 데 대해서 무관심하였다。

아니나 다를가, 저장고는 채 마르기도 전에 하루는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며칠이 계속되였다。

그래서 그만 수강 도중 지붕없이 쌓아 올린 공든 탑은 무너지고 말았다。

이 소식을 접한 도 농산부 지도 일군들은

—우리 도내에서 다 이렇게 되다간 큰 일 나겠네— 하고 이때야 걱정을 하더라고…

이렇게 하고서야

장 필순

"도회지에선 석탄불을 꺼뜨리지 않고 기술적으로 때는 것이 살림을 잘하는 사람이거든" 순실 동무는 항상 이렇게 생각해 왔다。

그래서 그가 연구해낸 것이란 곧 탄재를 털어서는 불이 활짝 핀 다음에 석탄을 덮는 방법이였다。

오늘도 그는 탄불을 뚫어 놓고는 시장에 나갔다。

—순실 동무! 탄불을 뚫어 놓고선 그렇게 오래 있다 오서요? 불이 다 꺼져가누만。

옆 집 아주머니의 말에

—탄불을 잘 피게 하느라고 난 일부러 미리 뚫어 놓는데요。이렇게 대답한 순실 동무는 언제나 하던 버릇대로 바께쯔에다 석탄을 잔뜩 이겨와서는 그날 저녁으로 다 써 버렸다。

그후 며칠이 지난 어느날。

—아니 순실 동무가 웬 일이서, 왜 집에 수도가 고장났어요?

—아니 그저,

—난 빈 바께쯔를 들고 오기에… 좀 올라와요, 제법 날씨가 선선해졌어요。

—이제 겨울 준비를 할 때도 됐나 봐요。

—살림꾼의 말은 정말 달러. 그럼 미리 준비해야지。어떤 일이든 눈 앞에 부닥친 후에 덤벼서야 되겠소。난 그래서 요즘 어떻게 하면 석탄을 절약할 것인가고 여간 머리를 쓰지 않는다오。

—석탄이야 배급을 주는데 뭘…

—그럴수록 절약해야지, 꼭같이 배급을 타고서도 이집 저집으로 석탄을 꾸러 다니는 사람을 보면 한심한 때도 있어요。아니… 그런데 순실 동무 갑자기 얼굴에 열이 오르는 것같으서, 무슨 일이 있어 온 것 같은데 쓸데없이 내 혼자 지껄리기만 해서…

—무슨 의논할 게 있어요?

—아니… 저…

—어려워 말고 말해요。

—저… 석탄 한 바께쯔만 꾸자고……

—?!

이렇게 석탄을 절약할 줄 모르는 사람이 살림을 잘 할 리 만무하지。

눈 가리우고 아웅

최영준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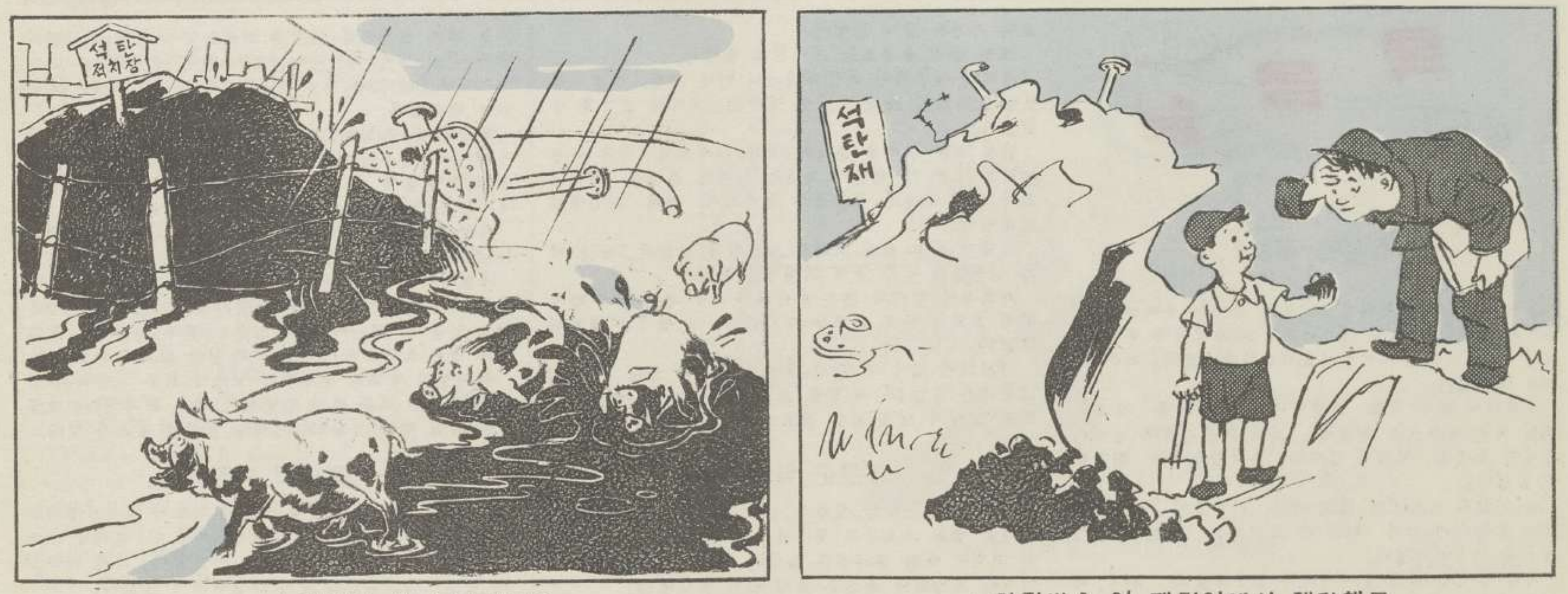
—저기 뚫어진 데는 모두 종이로 때여 붙였으니 다닐 때 주의해

—눈 감고 아웅하는 격이군。

일부 국유 건물 관리 일꾼들은 건물에 대한 보수 사업을 계획서만 작성하는 데 그치는 경향들이 있다。

석탄을 절약하자

송용남 그림



—너 갑자기 웬 얼룩이냐?

—넌?!

—아저씨! 이 잿덤이에서 채탄해도 일 없어요?

—응?!

피현 도로 상에서

—지도에는 이곳에 길이 있는
곳으로 돼 있는데?
—모를 꽂지 않은 곳이 길 같습니다…

최영근 그림

양시에서 피현으로 통한 길은 도로로서 자기 사명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

월동 준비

—여보 월동 준비를
미리부터 하시오.

—아직 날짜가 있는데 벌써
부터 서두룰게 있소?

문성수 그림

승부는?

최영근 그림

자기 체격만 믿고 일상적으로 운동 련습을 안한 결과 경기에서 패전하는 선수들을 왕왕 볼 수 있다.

겉만 보고 굽실

원광수 그림

아직 일부 일군들 가운데는 점대한 사람의 의복은 기억하는데 얼굴은 기억하지 못하는 현상이 있다.

록 음 실

김 문규

『풍부한 경험』

룡성 기계 공장 지배인 조 응필 동무는 성이나 관리국에서 젊은 일군들이 지도나오면 대개 『네가 무엇 아느냐 내가 그래도 지배인질을 7년이나 했다』 하는 태도로 대하였다.

그러면서 선진 기술 도입이나 설비 리용률 제고니 하는 것은 귓등으로 들었다. 그러나 공장에서 생산은 지배인 노릇을 7년이나 했다는 그것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었다.

새 기술이 적용되지 않고 설비 리용률이 높아지지 않는 조건에서 그가 하는 큰 소리와는 비길 바 없이 생산은 락후하여졌다.

계획 달성을 위한 궁여지책이 강구되였다. 값이 비싸고 생산이 쉬운 라이나 생산에 주물 부분의 력량을 모두 경주했다. 라이나의 돌격식 생산을 위하여 용선로에는 규정된 용량을 무시하고 원료를 장입하였다.

공장 내 이곳저곳에 라이나는 꾸역꾸역 쌓여 올랐으나 사가는 곳이 없었다.

또한 끝내 용선로는 깨여지고 말았다.

라이나 생산에만 치중하다나니 만년 광산, 서흥 광산들과 계약한 광산, 기재 생산은 도저히 보장할 수 없었다.

한편 생산 숫자를 올리기 위한 방책으로 함북 석탄관리국 산하 각 탄광에 보내는 광차는 용접을 제대로 하지 않고 필요한 부속품을 첨부하지 않고 되는대로 만들었다.

이렇게 해도 생산 계획은 달성되지 않았다. 끝내 여기 일군들은 국가 앞에 거짓말을 했다.

채화되여 팔리지 않은 라이나가 모두 팔린 것과 같이 허위 보고를 하고 금액상 계획만이라도 달성한 것처럼 꾸몄다.

이리하여 결국 조 응필 동무가 가지고 있는 7년간의 『풍부한 경험』은 새 것을 모르기 때문에 잔 재간과 기만밖에 남지 않은 낡은 것으로 되고 말았다.

『모순 앞에서』

소비 조합 온천읍 식당은 상급 평남도 소비 조합의 검열을 받고 그로부터 두가지 과업을 받았다. 그 하나는 고객에 대한 봉사성을 높이는 것이며 또 하나는 수익성을 보장하여 손실을 보지 않는 것이였다.

여기 일군들에게 이 두가지는 해결할 수 없는 『모순』 같이 생각되였다.

(봉사성을 높이자니 질좋고 값싸야 하겠는데 그러면 손해를 볼 위험성이 있고 수익성을 높이려면 될 수 있는 대로 원자재를 아껴야 하겠는데 그러면 손님들이 좋아 하지 않을 게) 아닌가고 그들은 생각했다.

그러나 『영리』한 여기 일군들은 이 『모순』을 솜씨 있게 해결했다.

말썽을 걸 수 있는 손님들 즉 소비 조합이나 군내 국가 기관의 간부들에게는 봉사성을 높이는 방향에서 하며 말썽이 있을 수 없는 사람들,보통 로동자, 사무원들에게는 수익성을 높이는 방향에서 하기로 하였다.

식당 거렁방에서는 수익성이 보장되였고 뒷방에서는 봉사성이 실현되였다.

거렁방에서 량권 식사를 하는 보통 사무원들이 지불한 부식대의 반도 못되는 원가밖에 안들인 식사를 하고 있을 때 뒷방에 들어 앉은 『간부』들에게는 규격에도 없는 호화로운 식사를 아주 헐한 값으로 공급했다.

봉사성의 제고와 수익성의 보장이 하등 모순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 일군들이 알기 위해서는 그들 머리 속에 들어 있는 낡은 때를 씻어낼 필요가 있다.

접시의 랭장고

모란봉 식당 한 식탁에 료리가 나오자 료리 접시를 자세히 들여다 보던 손님이 젓가락으로 접시를 두드리며 『쉬—, 쉬—』 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와 마주앉아 있던 그의 동행이 눈이 둥글해지며 물었다.

『왜 그래? 무슨 일이 있나?』

『보아하니 접시에는 풀만 가득한게 이 풀속에 뱀이나 있지 않을가 해서 그러네, 뱀한테 물려서야 되겠나…』

이 대화는 꽤 큰 목소리로 오고 갔지만 이 식당 일군들의 귀에는 들어가지 않는 모양이였다. 조금 후에 아까 그 장난군 손님이 또 다시 소리를 질렀다.

『있다, 있어!』

그는 젓가락으로 고기를 한점 집어 들고 자기 동행에게 보이였다.

그런데 이 장난군 손님이 한번 조리장 랭장고 속을 들여다 보았다면 얼마나 입을 크게 벌렸을지 모른다. 랭장고 안에는 소고기, 돼지고기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모란봉 식당 일군들이 육류는 랭장고에 넣어둔채 식사 규격을 위반해서 육류 대신 채소만을 즐겨 내놓는 것은 혹 이 식당으로 찾아오는 손님들을 모두 채식주의자들로 잘못 아는 모양.

입장료

모란봉 극장 매대에서 과자를 한 봉지 산 두 소년은 둘이 의좋게 나누어 먹으려고 과자를 세보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른 데서 파는 것보다 수효가 적었다. 두 소년은 머리를 기웃거리며 소군거렸다.

『왜 여기 과자 봉지는 적을가?』

『얘 그건 아마 과자 봉지도 극장에 들어 오느라고 입장료를 문 모양이다』

『아마 그런 모양이다』

그런데 이 소년이 말하는 종류의 『입장료』는 극장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매대 책임자 림 동선의 호주머니가 받고 있었다.

—여보세요, 저기 오물통에
버립시다.
—이런것 청소하는 것이
당신들의 임무 아니요?!

백창도 그림
(평양시 내무부)

편집 위원 장 진 광 (책임 주필) 김 선 낙
박 기 성 송 용 남
발행소 활 살 (시사 만화 잡지)사 인 쇄 1956. 9. 10. ㄱ—70677
인쇄소 미 술 인 쇄 공 장 발 행 1956. 9. 15. (값 50 원)

만화 뉴-스

저승 갈 준비

군사비 충당의 한 방법

리 승만의 "신 생활 운동"

리 승만 도배들은 "왜래품 압수"라는 구실 밑에 잡화상들에서 닥치는 대로 략탈하고 있다.

누구를 위한 부흥인가? 뻔한 노릇

장진광 그림